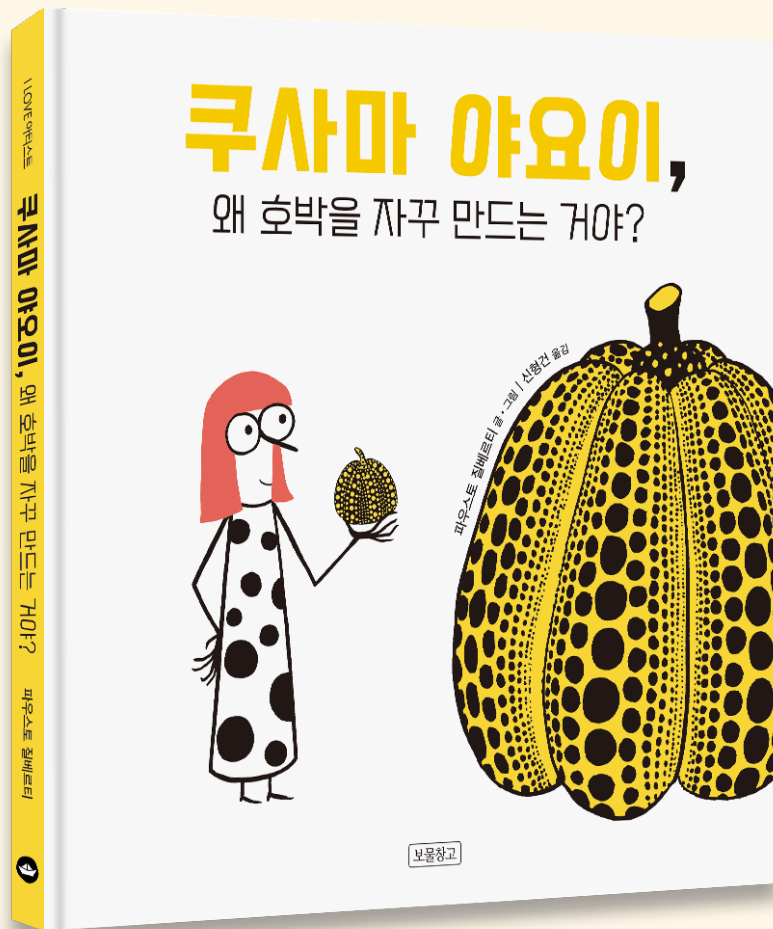


|유아, 초등 저학년

〈쿠사마 야요이, 왜 호박을 자꾸 만드는 거야?〉

파우스토 질베르티 지음 | 신형건 옮김 | 보물창고 펴냄



90세가 넘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함으로, 때로는 측은지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쿠사마 야요이의 삶과 작품 세계가 한 권의 그림책에 담겼다. 보물창고 <I LOVE 아티스트> 컬렉션의 네 번째 책으로 출간된 『쿠사마 야요이, 왜 호박을 자꾸 만드는 거야?』는 최초의 쿠사마 야요이 평전 그림책으로, 이탈리아 작가 파우스토 질베르티가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현대 예술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 주려고 만든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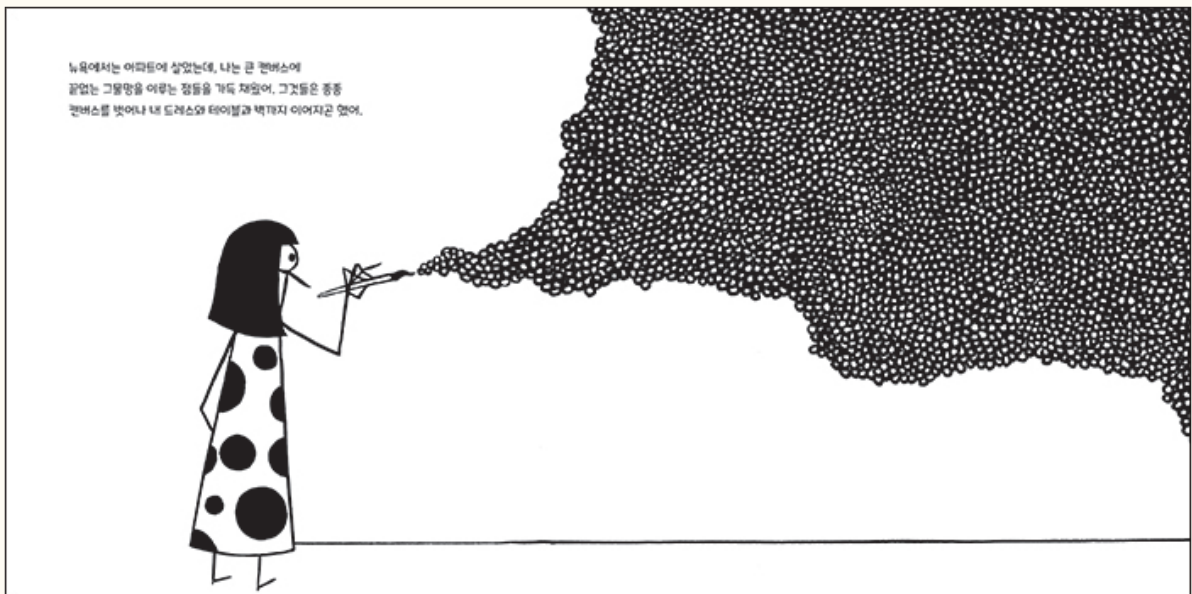
이 그림책은 쿠사마 야요이를 화자로 내세워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동양인 여성 예술가로 성공하기까지의 어려움, 정신 질환이 악화되어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와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일대기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읽기 전 활동

1. 앞표지에 있는 호박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2. ‘호박’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나 노래나 그림 등을 이야기 나눠 보세요.
3. 나만의 호박을 그려 보세요.

읽기 중 활동

1. 쿠사마 야요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어요. 내 꿈은 무엇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2. 모듬끼리 주제와 메시지를 정해 행위 예술을 기획해 보세요.



3. 선생님께 쿠사마 야요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쿠사마 야요이, 왜 호박을 자꾸 만드는 거야?』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을 서로 나눠 보세요.

읽은 후 활동

1. 내가 화가라면 어떤 작품을 그리거나 만들고 싶든지, 쿠사마 야요이가 되어 나만의 작품을 그려 보세요.
2.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내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3. 지금도 크고 작은 호박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쿠사마 야요이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 보세요.

